

"희망의 길, 하나의 길, 통일의 길"

2 0 1 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2018.07.11 ~ 08.01

E u r a s i a
E x p e d i t i o n



오거돈 Oh Keo-don

부산광역시 시장 Mayor of Busan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합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 환태평양과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의 시종착지이자 북극항로의 중심항입니다.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거쳐 중국-몽골-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관통하는 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환동해 경제권, 북극항로의 3축을 통해 세계 30위권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부산의 비전이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 루트를 탐사하였으며, 여러분들이 3개국 11개 도시에서 부산을 홍보하고, 각종 교류활동과 문화행사를 통해 민간외교사절단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와 함께 한국의 신북방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누르리 졸 등과 같은 각국의 정책 또한 우리 부산이 환동해권을 넘어 유라시아권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내년에는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러시아-유럽을 관통하는 대장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여름 21박 22일 간의 긴 여정을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유라시아 관문도시, 동북아 해양수도로써 우리 부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 of the 2018 Eurasia Expedition.

Busan, moving toward becoming the maritime hub of Northeast Asia,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railroad that connects the Pacific Rim,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and Eurasia, and the key port for the North Pole Route. It is the vision of Busan and ourselves to build the rail silk road from Busan to Europe through North Korea, China, Mongolia and Central Asia and take a leap forward as a top 30 global city in the world forming part of the Pacific Rim economic bloc and situated where the three axes of the North Pole Route meet.

The 2018 Eurasia Expedition has explored the China-Kazakhstan-Russia Route to realize this dream with the promotion of Busan in 11 cities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with exchange activities and cultural events as a private diplomatic mission.

Thanks to the conciliatory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policies in each country such as the New Northern Policy of South Korea,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and the Nurlu Zhol in Kazakhstan, there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Busan to become the center of the Eurasia area beyond the Pacific Rim. In practice, Busan is carrying forward the expedition through China-Russia-Europe via North Korea next year and we promise we will share the rewards with all of the Busan citizens.

Again, I'd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and gratitude to you all who successfully finished the long expedition of 22 days last summer and ask all of the Busan citizens for their support for Busan to develop even more as the maritime hub of Northeast Asia. Thank you.

기념사

Commemorative Message



로이 알록 꾸마르 Alok K. Roy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BFIC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제3기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첫 닳을 올린 유라시아 대장정 프로젝트가 벌써 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과 함께 지역청년, 시민전문가 등 55명의 단원들이 21박 22일 동안 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로 이어지는 총 연장 11,737km의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제3기는 지자체 최초의 3회 연속 추진된 공공외교 행사로 제1기(2016)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러시아 주요도시를 횡단하였고, 제2기(2017)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몽골횡단철도를 이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를 횡단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하는 등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지나며 각 도시별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거점도시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농구교류, 알마티 부산데이 행사, 부산-길림성 청년교류, 부산-모스크바 영화교류 등 경제·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함으로써 도시외교 사절단 역할도 독특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지 시민들에게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을 각인시키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한 부산-유라시아 도시 간 교류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유라시아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제3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부산시장님과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과의 원활한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주부산러시아총영사님, 주부산중국총영사님, 카자흐스탄대사님을 비롯한 각 도시의 공관장 및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را 드립니다. 그리고 대장정 단장님과 자랑스러운 대장정 단원 55명 모두에게도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I'm very delighted that the third Eurasia Expedition was successful.

The Eurasia Expedition Project is in its third year since starting off as the 'Eurasia Expedition' in July 2016. This year the project was carried forward as a part of the New Northern/Southern Policy with the 55 members, the local youth and citizen experts, conducting the 11,737 km-long expedition through China-Kazakhstan-Russia for 22 days with the new title 'Eurasia Expedition.'

This third 'Eurasia Expedition'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diplomatic event that has been held for 3 years in a row. The first expedition (2016) passed through the main cities in Russia on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second expedition (2017) passed through China, Mongolia and Russia using the Trans-Siberian and Mongolian railways. This year's expedition crossed the border of China and Kazakhstan for the first time. The expedition has opened a new horizon to Russia, China, Kazakhstan and back to Russia with many successful events in each city.

The expeditio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intercity diplomatic delegation with positive cooperation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each city by holding many events in diverse fields like the economy, culture and sports. The events include the 10th anniversary of Busan-Saint Petersburg Sisterhood, Busan-Vladivostok Basketball Exchange, Almaty Busan Day, Busan-Gilin Province Youth Exchange, Busan-Moscow Film Exchange, etc. They promoted Busan to the local residents as the maritime hub of Northeast Asia and the Eurasian gateway cit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usan-Eurasia intercity exchange for the age of unification. This will lead Busan and BFIC to spur Eurasia intercit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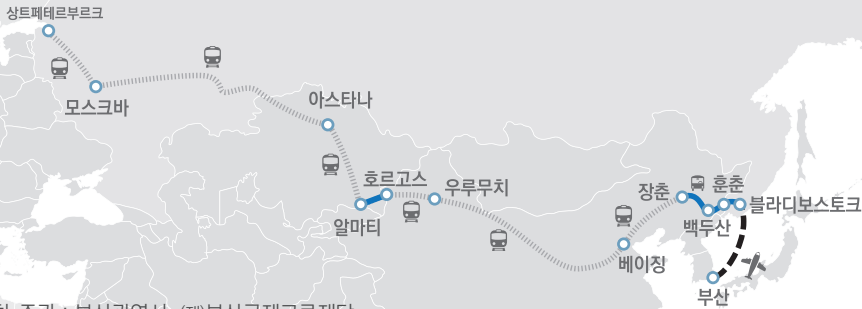
Lastly, I express my gratitude to the mayor of Busan, the Russian Consul General in Busan, the Chinese Consul General in Busan, the ambassador of Kazakhstan and all the directors and everyone concerned for your generous support for the success of the 'Eurasia Expedition.' I also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chief and the 55 proud members of the expedition.

- 기 간 : 2018. 7. 11(수) ~ 8. 1(수), 21박 22일
- 규 모 : 107명
 - 대장정 단원 55명(부산 소재 청년 38명, 전문가 7명, 운영진 10명)
 - 부산장단 10명, 청소년 농구교류단 16명, 부산청소년교향악단 26명
- 주 제



▪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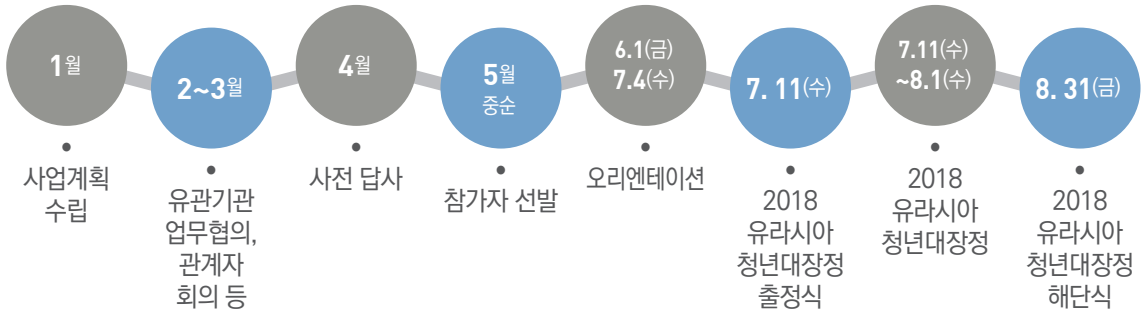
부산(항공) ⇨ 블라디보스토크(육로) ⇨ 훈춘 ⇨ 백두산 ⇨ 장춘(열차) ⇨ 베이징 ⇨ 우루무치 ⇨ 호르고스(육로) ⇨ 알마티(열차) ⇨ 아스타나 ⇨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공) ⇨ 부산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재)부산국제교류재단
- 후원·협찬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농심, (주)트렉스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YMIS 청소년·다문화 국제봉사단
- 주요 내용 : 유라시아 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부산-블라디보스토크 (7/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정식(부산) · 환영식(블라디) · 리틀부산데이 · 청소년 농구교류 	훈춘-백두산 (7/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전전망대 탐방 · 한국기업 견학(농심) 	장춘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대학 캠퍼스 투어 · 부산-길림성 청년 친선교류 · 역사탐방 	베이징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 스타트업 콘서트 	우루무치 (7/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로드 역사탐방
호르고스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식 · 특별경제구역청(SEZ) 시찰 	알마티 (7/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Busan Day · 주말마티 총영사 특별강연 · 부산-알마티 청년 친선교류 	아스타나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카자흐스탄 대사 특별강연 · 한국영화제 · 역사탐방 	모스크바 (7/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필름 스튜디오 견학 ·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영화교류 · 한국영화제 	상트페테르부르크 (7/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an Day (자매결연 10주년) ·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갈라콘서트 · 한국기업 견학 (성우하이텍, 현대차) · 역사탐방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사업 추진일정**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전체일정**

일자	시간	행사명	장소	비고	
부 산					
1일차	7/11(수)	15:00-16:00 19:25-22:15 22:30-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정식 □ 항공이동 (부산→블라디보스토크) ■ 환영식 	부산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부산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SU5463 블라드모터인호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일차	7/12(목)	10:00-15:00 17:00-19:00 19: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방 ■ 리틀 부산데이 ■ 부산-블라디 청소년 농구 친선경기 	중앙광장, 개선문, 독수리전망대 등 올림피에즈 체육관 앞 올림피에즈 체육관	블라드모터인호텔
<중국> 훈춘 ⇨ 이도백하 ⇨ 백두산 ⇨ 장춘 ⇨ 베이징 ⇨ 우루무치 ⇨ 휘얼귀스					
3일차	7/13(금)	06:00-11:00 14:00-15:00 15: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이동 (블라디→훈춘), 국경통과 ■ 통일염원-방천전망대 답사 □ 차량이동 (훈춘→이도백하) 	안중근 단지동맹비 경유 훈춘 방천	왕조성지호텔
4일차	7/14(토)	10:00-12:00 13: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탐방 □ 차량이동 (백두산→장춘) 	농심(이도백하) *백두산 일정 우천으로 취소	장춘야태호텔
5일차	7/15(일)	10:00-12:00 12:00-14:00 15:00-17:00 21:58-06: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림대학 캠퍼스 투어 ■ 부산-길림성 청년 친선교류 ■ 역사탐방 □ 열차이동 (장춘→베이징) 	길림대학 길림외국어대학 위만항공 장춘역	Z62(8h10m)
6일차	7/16(월)	06:08 10:00-12:00 14:00-17:00 18: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도착 ■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 KIC-China 센터장 주재 환영만찬 	베이징역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혁신센터-중국(KIC-China)	춘훤원호텔
7일차	7/17(화)	10:00-17:35(+1)	□ 열차이동 (베이징→우루무치)	베이징역	Z69(31h35m)
8일차	7/18(수)	17:35	■ 우루무치 도착	우루무치역	우호호텔
9일차	7/19(목)	09:30-16:00 20:11-0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방 □ 열차이동 (우루무치→휘얼귀스) 	천산천지, 국제시장 우루무치역	K9789(11h28m)

일 자	시 간	행 사 명	장 소	비 고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 알마티 ⇄ 아스타나					
10일차	7/20 (금)	07:42 08:00-13:00 14:00-17:00 17: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얼귀스 도착 □ 차량이동 (휘얼귀스-호르고스), 국경통과 ■ 환영식, 특별경제구역 시찰 □ 차량이동 (호르고스→알마티) 	휘얼귀스역 휘얼귀스국제버스터미널 호르고스 특별경제구역 알마티	카자흐스탄호텔
11일차	7/21 (토)	10:00-12:00 13:00-15:00 16: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방 ■ 부산-알마티 청년 친선교류 ■ 주알마티 총영사 특별강연 	침블락 침블락 카페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호텔
12일차	7/22 (일)	11:00-17:00 18:36-08: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Busan Day □ 열차이동 (알마티→아스타나) 	고리키 공원 알마티 제2역	701ㄷ(13h44m)
13일차	7/23 (월)	08:20 11:30-15:30 16:30-17:30 19: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타나 도착 ■ 역사탐방 ■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 특별강연 ■ 한국영화제 	아스타나 제1역 바이쎬레, 독립기념궁 카즐호텔 키노파크 7 IMAX관	킹호텔
14일차	7/24 (화)	11:10-15:27(+2)	□ 열차이동 (아스타나→모스크바)	아스타나 제1역	083ㄷ(55h17m)
15일차	7/25 (수)	전일	□ 열차이동 (아스타나→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16일차	7/26 (목)	15:27 16:00-16:30 17: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크바 도착 ■ 환영식 ■ 역사탐방 	모스크바 카잔스키역 붉은광장, 바실리성당, 유람선투어	인투리스트 콜로멘스코예호텔
17일차	7/27 (금)	10:30-12:00 14:00-18:00 19:0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스필름 스튜디오 견학 ■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영화교류 ■ 한국영화제 	모스필름 영화스튜디오 돔키노(벨리홀) 돔키노(블쇼이홀)	인투리스트 콜로멘스코예호텔
18일차	7/28 (토)	09:00-14:00 15:30-19:16 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방 □ 열차이동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짜리찌노 공원, 참새언덕 등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스키역 상트 모스콥스키역	SAPSAN(3h46m) 디플로매트호텔
19일차	7/29 (일)	12:00-18:00 19:00-2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stival-Bridge to Korea with Busan Day (자매결연 10주년) ■ 부산-상트 갈라콘서트 	알렉산드롭스키 공원 뮤직홀	디플로매트호텔
20일차	7/30 (월)	11:00-13:30 14: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탐방 ■ 역사탐방 	성우하이텍, 현대차 여름궁전, 피의성당, 카잔성당	디플로매트호텔
21일차	7/31 (화)	10:00-19:00 23:00-13: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방 □ 항공이동 (상트페테르부르크→인천) 	페트로파블롭스크요새, 이삭성당, 에르미타주 상트 폴코보 공항	KE930
22일차	8/1 (수)	13:50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도착 □ 부산도착 (김포→부산)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KE1123

7.11 출정식

Opening Ceremony



▲ 경제부시장 인사말씀

▲ 부산시 통상진흥과장 경과보고

▲ 축사(주부산 중국총영사)

▲ 축사(주부산 러시아총영사)



▲ 출정선서



▲ 대장정 기 전달



▲ 기념촬영

7.11~7.12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환영식

Welcome Ceremony



▲ 빵과 소금 환영식



▲ 블라디보스토크시 국제관계관광국장 환영사



▲ 기념촬영

리틀 부산데이

Little Busan Day



▲ 이벤트존



▲ 한국음식체험존



▲ K-Beauty 체험존



▲ 키즈존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청소년 농구 친선경기

Busan-Vladivostok Youth Basketball Goodwill Game



▲ 단원 무대인사



▲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공연팀(창작무용) 공연



▲ 경품추첨 이벤트

7.13~7.14
 훈춘·이도백하
 Hunchun-Erdaobaihe

통일염원-방천전망대 답사
 Hope of Reunification-Exploration of the Fangchuan observatory



▲ 방천전망대 답사

▲ 북-중-러 접경지역 전경

한국기업 견학- 농심 백산수 공장
 Field Trip to a Korean Corporation-Nongshim Baeksansoo Plant



▲ 기업스토리 청취



▲ 홍보관 및 생산라인 투어



▲ 기념촬영

7.15
장춘
Changchun

길림대학 캠퍼스 투어
Campus tour of Jilin University



▲ 캠퍼스 시찰



▲ 교내 편의시설 시찰

부산-길림성 청년 친선교류
Busan-Jilin Province Youth Friendship Exchange



▲ 길림성외사판공실 부처장 환영사



▲ 길림성 청년 대표 환영공연



▲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공연팀(K-Pop) 공연



▲ 친선 레크레이션



▲ 기념촬영



▲ 학식체험

7.16
베이징
Beijing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Visiting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 한국공사 특별강연



▲ 주중대사 인사말씀



▲ 외교관과의 대화



▲ 중관촌 스타트업거리 시절

스타트업 토크콘서트 및 환영만찬

Start-up Talk Concert and Welcome Dinner



▲ 중관춘 스타트업거리 홍보관 방문



▲ 스타트업 성공사례 토크콘서트



▲ KIC-China 센터장 특별강연



▲ 처쿠 카페 방문



▲ 환영만찬

7.18~7.19
우루무치
Urumqi



▲ 소수민족 공연 관람

▼ 천산천지 탐방



7.20
휘얼귀스-호르고스
Horgos-Khorgos



▲ 중국 휘얼귀스 국경통과

▼ 카자흐스탄 호르고스 환영식



▼ 호르고스 경제자유구역청 환영오찬



▲ 호르고스 경제자유구역청 시찰



▲ 기념촬영

7.21- 22
알마티
Almaty

데니스 텐 추모식 참석

Attending the memorial ceremony of Denis Ten



침블락 탐방

Visiting Shymbulak



부산-알마티 청년 친선교류

Busan-Almaty Youth Friendship Exchange



▲ 친선 레크레이션



▲ 기념품 교환



▲ 기념촬영

주알마티 총영사 특별강연

A Special Lecture by Consul General of Almaty



▲ 총영사 특별강연



▲ 질의응답



▲ 기념촬영

Korea-Busan Day



▲ 개막식



▲ 단원 무대인사



▲ 부스운영



▲ 한국문화체험존



▲ 키즈존



▲ 한국음식존

7.23
아스타나
Astana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 특별강연

A Special Lecture by Korean Ambassador of Kazakhstan



▲ 대사 특별강연



▲ 질의응답



▲ 기념촬영

한국영화제

Korean Film Festival



▲ 단장 인사말씀



▲ 단원 무대인사



▲ 한국영화제(키노파크7 IMAX영화)

7.26-28
모스크바
Moscow

환영식

Welcome Ceremony



▲ 빵과 소금 환영식



▲ 러시아 철도청 관계자 환영인사



▲ 러시아 철도청 관악단 축하공연



모스필름 스튜디오 견학 / Field trip to Mosfilm Studio



▲ 촬영소품관 견학



▲ 스튜디오 견학



▲ 영화세트장 견학

부산-모스크바 차세대 영화교류 / Busan-Moscow Next Generation Movies Exchange



▲ 친선 레크레이션



▲ 러시아영화 토크콘서트



▲ 만찬교류 네트워킹

한국영화제 / Korean Film Festival



▲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공연팀(창작무용) 공연



▲ 단원 무대인사



▲ 한국·부산 주제 퀴즈 이벤트

7.28-31
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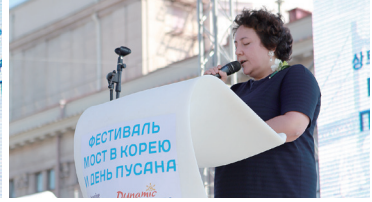
부산-상트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Festival-Bridge to Korea with Busan Day



▲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공연팀(K-Pop) 공연



▲ 행정부시장님 인사말씀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대표 인사말씀



▲ 테이프 커팅식



▲ 단원 무대인사



▲ K-Pop 컨테스트

행사장 전경



▲ 키즈존



▲ 포토존



▲ 이벤트존



▲ 한국문화체험존



▲ 이벤트존



▲ 부산홍보관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갈라콘서트

Busan-St. Petersburg Gala Concert



▲ 부산청소년교향악단 공연



▲ 합동공연



▲ 유라시아청년대장정 공연팀 공연



▲ 한국난타 '잼스틱' 공연



▲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 공연



▲ 기념촬영

한국기업 견학-성우하이텍, 현대자동차

Field Trip to Korean Corporations-Sungwoo Hitech, Hyundai Motor company



▲ 성우하이텍 방문 기념촬영



▲ 현대자동차방문 기념촬영

단원 소개



단장_배수한



전문가_김민주



전문가_류윤신



전문가_문수원



전문가_박현숙



전문가_주동욱



전문가_최은영



청년_팽정환



청년_김정욱



청년_권재윤



청년_이아련



청년_김종원



청년_손상연



청년_정시은



청년_강양훈



청년_서혜령



청년_한정희



청년_박강훈



청년_정예은



청년_서윤후



청년_박선아



청년_정석영



청년_장지훈



청년_박수현



청년_이준영



청년_성원준



청년_박성호



청년_오수정



청년_류재영



청년_김지윤



청년_곽미소



청년_이조림



청년_곽빛보라



청년_염시연



청년_정혜원



청년_김영진



청년_장준혁



청년_윤성경



청년_손현빈



청년_김민우



청년_박은정



청년_김지훈



청년_정진우



청년_박해정



청년_지상아



운영진_이수봉



운영진_전나용



운영진_박화영



운영진_로이알록 꾸마리



운영진_주현후



운영진_방나현



운영진_손은선



운영진_손희승



운영진_김세진



운영진_신창훈



안 영 철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장

해양과 대양의 관문도시 부산을 꿈꾸며..

2018년 남북 공동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품고 출범한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무척 기쁩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21박 22일 동안 남북한의 연결이라는 꿈을 안고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의 3개국 11개 도시에서 부산이 유라시아 철도의 시종점이자 유라시아 관문도시임을 알리고 각 도시와 우호협력을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도시외교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영역을 향한 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난 9월 오거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남북평화체제의 확립과 부산을 유라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도시외교 비전은 저희 재단의 핵심과제입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부산 지역 대학생, 일반인들로 구성된 단원들이 민간외교관이 되어 직접 머리를 맞대 행사를 기획·진행하며 현지 주민들과 교감을 통해 부산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등 부산을 넘어 국익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외교의 특별열차입니다.

특히, 지자체로는 최초로 3회 연속 추진된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올해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의 신규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이 “부산주도 북방협력체계”의 구현을 위한 명실상부한 도시외교자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이제 유라시아 관문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품은 원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 온 유라시아 대장정은 내년에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대장정에 오르고자 합니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북한을 경유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럽 땅을 밟아 부산의 자주적 도시외교 비전의 공감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결국에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그리고 '통일의 길'을 실현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1박 22일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한 자랑스러운 대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하여 부산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고 신북방시대를 선도하며 유라시아 공동체를 위한 산파가 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 멘토 김세진



“인원점검하십시오!”

하루에도 7~8번씩 들리는 함성에 모두들 얼굴을 쭈그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인원점검은 100번 하면 100번이 정확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녔다.

옆에 있는 친구를 챙기고, 팀원을 헤아리고, 동생들을 보듬고, 형과 언니를 따라 열심히 다녔다. 멘토들에게도 더 이상 멘토로만 남아있을 여유가 없었다.

빨간 약통을 들고 하루 종일 대원들의 안색을 살피고, 차 조심, 길 도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카메라와 공용 짐을 양손에 들고 길을 넓혔다.

손바닥만 한 체력을 내어주고, 운동장 만한 추억을 얻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11개 도시에서의 스무 날!

우리는 그렇게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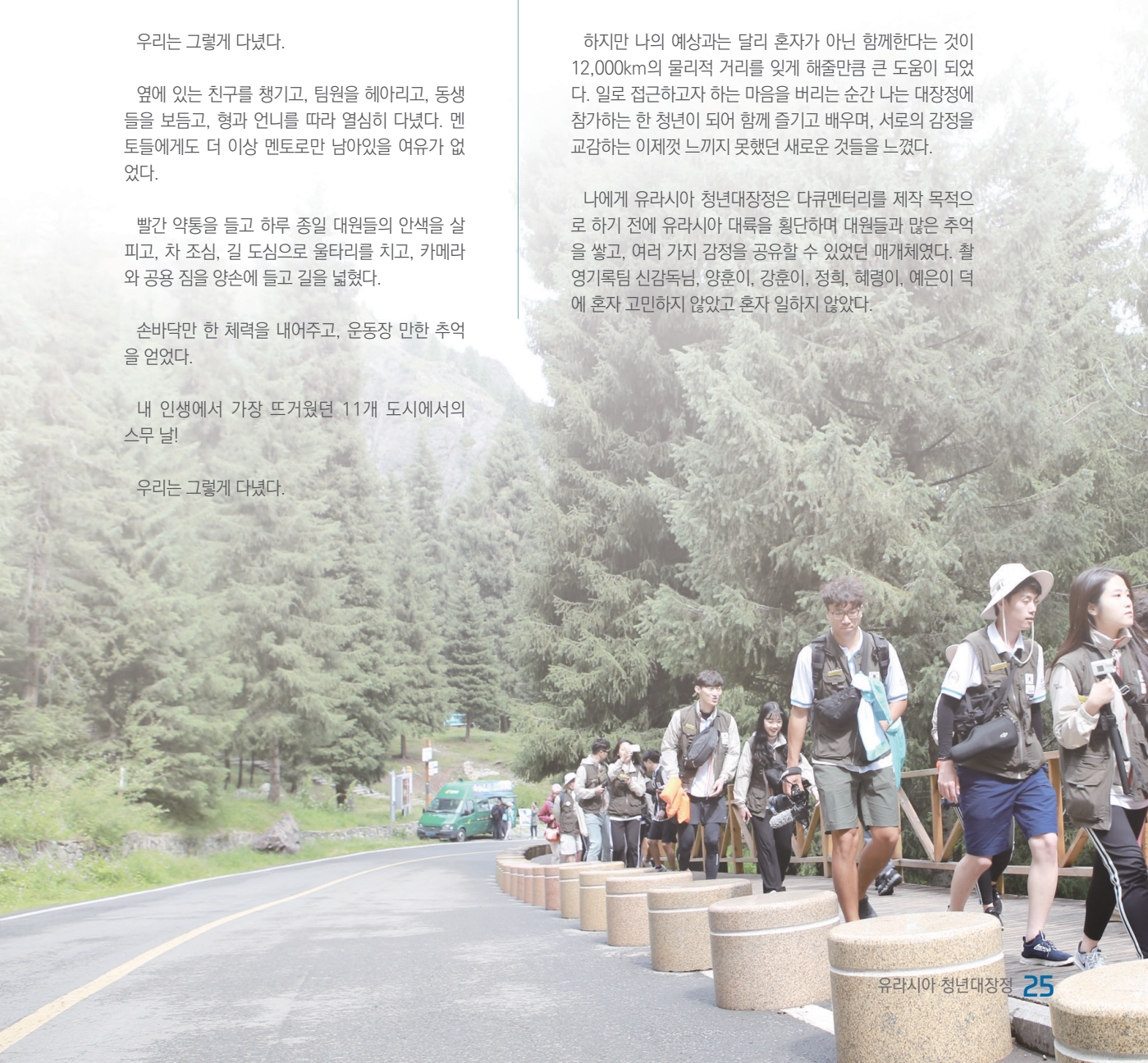
촬영기록팀 멘토 주동욱



비빔 일정 속에 한 번도 함께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행운이다. 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적으로만 접근하겠던 마음가짐으로만 출발하였고, 한팀에 소속되어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 부담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혼자가 아닌 함께한다는 것이 12,000km의 물리적 거리를 잇게 해줄만큼 큰 도움이 되었다. 일로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나는 대장정에 참가하는 한 청년이 되어 함께 즐기고 배우며,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는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느꼈다.

나에게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목적으로 하기 전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대원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매개체였다. 촬영기록팀 신감독님, 양훈이, 강훈이, 정희, 혜령이, 예은이 덕분에 혼자 고민하지 않았고 혼자 일하지 않았다.



통역지원팀

청년_장준혁



저는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3기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부듯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가보지 못한 곳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특기이자 전공인 중국어를 사용하여 단원들의 중국 여정을 큰일 없이 지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처음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활동을 알고 면접 준비를 하고, 합격 후에도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팀원들과 잘 생활하고 도우며, 단원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중국 전, 행사 준비와 OT를 거쳐 팀원들을 알아가고 나의 역할을 다시금 다잡았습니다. 중국지역 행사와 통역을 진행할 때를 대비하여 팀원들과 수정하고 맞추고 연습을 거듭하며 책임감,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중국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운영진 선생님들과 단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을 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저의 중국어 사용의 역할은 종료되었지만 좁게는 러시아 담당 팀원들을 뒤에 서서포트하고, 약간은 생활과 여정을 여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지역 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탈 때는 불편함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도 배웠습니다. 열차 내에서 모두 같이 술을 마시며 힘들고 더운 것도 잠시 잊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얻고 추억과 사람을 얻게 해준,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화이팅!

안전지원팀

청년_서윤후



유라시아 횡단, 말만 들어도 벽찬 이 대장정을 직접 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잘해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과 운영진, 그리고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신 멘토님 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예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횡단 기차로, 하나의 길로 함께 내달리며 하나가 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끈은 기차길처럼 부딪히지 않고 나란히 손을 잡고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처럼 남북 관계가 완만해져서 하루속히 유라시아의 시발 도시로서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싶습니다. 머지않은 가까운 밝은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우리는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전지원팀 청년_정석영



저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알았을 때,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유라시아 대륙의 소속이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있습니다. 저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기까지 18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번의 부산데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여러 지역의 관광지를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부산데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부산을 알릴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행동이 타국가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문화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명의 개인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며 저의 행동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개국의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천산천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고, 침블락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호르고스에서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장차 유라시아 물류의 허브가 될 호르고스를 보며, 철도물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대일로의 진행성과를 배웠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했던 목표도 실현하였습니다. 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교환학생 시절 하지 못했던 블로그를 매일매일 등록하였고, 현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한 걸음씩 진전시켰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배웠던 경험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저의 프로젝트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처럼,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과 지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안전지원팀 청년_이준영



지난 20박 동안 팀원, 단원들과 함께 힘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지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의 중요성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굉장히 넓고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두 눈과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북한과 38선을 경계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 굳게 닫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약 10,000km의 물류 교통 길을 꼭 열어 대한민국 부산의 힘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그 속도는 가속이 붙고 에너지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단체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닌 3개 국가를 20박 동안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중한 팀원들이 옆에서 지켜봐 주고 함께 힘든 것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넓은 시야와 지식입니다.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수학, 물리의 세상만 바라봐왔던 저는 넓은 세계에 놓이자 시야가 좁아지고 느끼는 바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와 선배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과 같이 느끼는 것이 많아 보였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는 힘을 기를 것입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행사팀 청년_박성호



편안함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 편안함은 나에게 항상 독이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수많은 방학을 했고, 그 방학기간 동안 나는 항상 편안함을 원했다. 그 편안함을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엔 항상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마지막 여름방학인 이번 방학은 끝나면 달콤한 과일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대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전공하면서 항상 가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었고,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은 나의 동경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었다.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총 55명의 단원이 하나로 뭉쳐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 준 실크로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라시아 물류루트 개척과 거점 도시별 교류행사를 통해 부산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었다.

그중 행사별 무대공연을 전담하는 공연행사팀에서 나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긴 여정으로 피곤해지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항상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게 맡은 바 역할을 완벽히 했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이 시작하기 전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다. 먼저 개인으로서 전공 언어인 포르투갈어와 복수전공 무역을 이후 유라시아 물류루트에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기, 그리고 하나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부산데이를 통해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기였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내가 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추억과 소중한 인연 또한 남겨 나에게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으로 보낸 시간은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확신한다. 만일 주위에 청년대장정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 나와 같이 달콤한 과일을 얻어 가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다.

홍보기획팀 청년_김민우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기에 참가한 후 다시 한번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싶은 마음과, 2기 때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난 것과 같이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출발하기 전 짐을 싸면서 지난 2기 여정을 떠올리며, 두근거림과 여정을 하며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이미 유라시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데이를 하며 작년에 아쉬웠던 것들을 보완하여 버스 운영을 하려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부산데이를 하는 동안 느낀, 부산을 알린다는 자부심은 여전히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데이 뿐만 아니라, 친선교류, 영화제, 영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친구들과 직접 마주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부산을 알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기와 비교하였을 때 문화탐방이 더욱 많이 늘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더욱 좋았습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두 번 참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언젠가는 꼭 한 번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보기획팀 청년_정진우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3기를 모집하는 공고를 처음 본 날, 가슴이 뛰며 설레는 느낌을 잊을 수 없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카자흐스탄을 거쳐 상트페테

르부르크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비록 남들과 차별화되는 특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서류지원과 면접에서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기쁘게도 합격할 수 있었다. 여정을 떠나기 전 각 나라의 청년들과 교류하고 부산을 잘 알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대장정을 떠나는 당일,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며 여러 감정이 들었다.

여정의 시작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부산데이를 진행하였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안중근 의사를 기다리는 단지동맹비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때 가슴이 울컥해졌다. 중국에서 백두산과 천산천지를 보며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길림대학 학생들이 준비한 한글 시 낭송, 춤, 노래공연은 조금 서툴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청년들과 교류회를 갖고 친해져 그들과 같이 부산데이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신났다. 모스크바에서 영화관람, 배우와의 토크콘서트, 한국영화제를 진행하며 러시아인들과 영화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상트페테르부르크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총 100시간이 넘는 기차를 타며 어렵고 힘들었지만 단원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나 자신이 한걸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이라면 꼭 도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촬영기록팀 청년_정예은



나는 유라시아 교류 협력과 신북방 진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부산을 출발하여 21일간의 유라시아 청년 대장정에 참여하였다.

중국에서부터 도로, 철도를 통해 각 국경을 통과하며 낯선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통일에 대한 나의 마음은 더욱 커져갔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까지도 전쟁의 불안함을 갖고 한국의 세계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육로를 통해 국경을 지나칠 때마다 한국이 통일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곤 했다. 남한에 비해 비교적 덜 발달된 북한 땅에서 남한 기업들이 독점을 하거나 60년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소통적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이 번 여정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우루무치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다. 황인의 외관과는 매우 달랐다. 저녁식사를 하며 위구르족의 모습을 보며 한 국가 내에서도 확연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쩌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 후 각자의 문화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들을 서로 동화시키기보단 하나의 문화예술로서 보존시켜 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접경 지역은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미래의 무역활동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한국보다 몇 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먼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국토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앞으로의 해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역지원팀

청년_곽빛보라



20대 초반을 잃어버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안타까워하며 보냈다. 낯선 땅, 남의 나라, 남의 집, 잊어가는 한국어,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상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20대의 후반이 되어서야 책임감과 보람을 찾아 노력했고 노력에 대한 결과는 가끔씩 커다랗게 나를 배신했다.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느꼈고, 책임감 하나로 다니던 일을 그만두었다. 내 20대 후반과 30대의 시작을 바쳐 일을 하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후회는 없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살아갈 날 중 가장 어릴 지금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었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 일을 하며 너무 높아진 책임감에 지친 나를 위로하며 아직은 조금 무모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원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원어민 교사에게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행사를 소개받고, 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에 대해 알게 되고 지원하게 되었다. 낯도 많이 가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나는, 면접을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대장정에 도전할 자신이 없었다. 면접을 보던 자리에서 일을 하다 오랜만에 면접을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본 건지 모를 정도로 떨고야 말았다. 그러나 면접 분위기도 좋았고 결과는 합격! 게다가 통역지원팀 팀장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1차 오리엔테이션 날, 팀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팀원들에게 더 다가가려 나름 노력하였음에도 아직은 어색한 팀원들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함께 고생을 하면 친해진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일들 덕분에 2차 오리엔테이션 전 준비를 위해 계속 함께한 팀원들과 많이 친해질 수가 있었다. 여정 중에도 거의 매일 수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팀원들끼리는 이미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또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였다.

운영진분들은 여행이 아니라 힘들지만 뜻깊은 대장정이 될 것이라 하셨지만, 솔직히 떠나기 전까진 여행의 설렘이 더 커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설렘에 부푼 마음을 안고 도착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를 부산데이를 진행하며 한국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느끼며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한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첫 부산데이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그림처럼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부산과 한국을 대표하여 땀을 흘려 뛰어다닌 뒤 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석양은 함께한 대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벽참이었다.

중국 국경과 카자흐스탄의 국경, 긴 기차시간, 무거운 짐, 이동할 때마다 내리는 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많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또 힘든 것이라 각오하고 왔기에 그 또한 즐거움이었고 도전이었다. 물론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두서없이 진행되는 점이 아쉽기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의외의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에 팀원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며 오히려 더 잘해내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모든 일정이 끝나가는 지금, 왔던 길도 돌아서 한국을 가라고 해도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대장정 기간 동안 행복하고 아주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었다. 출발 첫날부터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좋았던 단원들, 많은 일에 힘드시면서도 잘 챙겨주시는 운영진분들, 바쁘신 운영진을 도와 대원들을 챙겨주고 응원해주신 멘토님들... 힘들었던 여정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힘이 되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서로에게 웃음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서로 짐을 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가며 보낸 지난 시간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여정을 이어서 삶에서도 함께 대장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점검팀

청년_권재운



유라시아는 낯선 단어였고 이번 대장정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대장정에 지원하고 선택되고 여정을 시작한 순간 나에게 유라시아라는 단어와 장소는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날 반겼고,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 지금 이번 대장정을 시작한 순간과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확신한다.

처음 지원할 때에도 이번 대장정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 되고 여기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꿈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훈춘, 이도백하, 장춘, 호르고스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스타나 그리고 다시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오면서 세상은 무진장 넓고 아름다운 곳과 맛있는 것들은 많으며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분야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틀과 제도 속에서 지냈더라면 생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를 것들을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여정을 통해 많이 얻고 간다. 이번 여정이 끝나고 제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선 세계를 보는 관점을 더 크게 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둘러싼 중요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위해 힘쓸 것이다. 그리고 언어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세계화에 더 대비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나의 길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또 이번 여정을 통해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다가가는 혹은 먼저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았지만 부산을 대표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부산을 알릴 수 있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으며 다양한 나라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21박 22일 동안 매일 행복했으며 좋은 기회를 얻음에 감사했다. 이러한 기회를 지원해준 부산국제교류재단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부산시가 물류항만 거점 도시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본다.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돌아가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많이 퍼뜨려야겠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진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점검팀

청년_김정욱



평소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대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던 나는 2년 전부터 시작한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에도 언젠가 꼭 한 번 참여해보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올해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인원점검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먼저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취지와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과 잘 맞았고, 앞으로 한반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부산의 청년들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관계자분들과 함께 준비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부산이 각국의 중요 도시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각자의 장점들을 살리고 부산을 홍보하며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면모를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북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동아시아의 반도 국가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철도로 물류와 문화와 인적 자원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교류하는 날이 오게 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함께했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인원점검팀

청년_김종원



저희는 오늘 부산-블라디보스토크-훈춘-백두산-장춘-베이징-우루무치-호르고스-알마티-아스타

나-모스크바를 지나 마침내 마지막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3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단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벌써부터 추억처럼 느껴져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큼니다.

물론 대장정 기간 동안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단원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부산에 대해 알리고, 현지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던 부산데이부터 몇 번 타봤다고 점점 익숙해져 편해져 버린 55시간 기차까지. 이 외에도 행사 일정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단원들이 잘 모였는지 수시로 체크했던 우리 인원점검팀. 우리들의 건강을 항상 관리해주었던 안전지원팀. 우리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담아준 촬영기록팀. 공연기획부터 무대공연까지 너무 멋있었던 공연행사팀. 모든 일정 동안 우리의 입이 되어주었던 통역지원팀.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SNS에 수시로 우리들의 활동을 홍보해주 준 홍보기획팀까지! 너무 더운 날씨와 빡빡한 일정으로 힘들 법도 하지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서로 서로를 배려하며 생각해주 준 단원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잘 이끌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운영진분들과 멘토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통역지원팀

청년_염시언



7월 11일, 우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외교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해공항에서 진행된 출정식은 21박 22일의 대장정을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나에겐 감회가 더욱 새로웠는데, 지난 6개월간 유라시아협력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카

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전공하며 유라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고, 나는 통역지원팀의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전담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떠나기 전 나는 두 가지 다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유라시아 물류루트 탐방의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하기, 두 번째는 전공언어를 활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중국, 카자흐스탄 대사관 강연과 청년 친선교류, 부산데이이다.

중국 베이징,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대사 초청 강연을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에서의 영향력과 미래 전망, 그리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유라시아 청년 단원들에게도 청년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카자흐스탄보다 덜 가졌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중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알수록 더 재미있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번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한-카자흐 청년 친선교류회”에서 진행자를 맡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알마티 학생들과 우리 단원들이 모여 부산을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애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진행을 맡으려니 적지 않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가기 전부터 계속 대본을 수정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홍보하는 총 3번의 부산데이가 모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어 나는 단원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현지인들과도 친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부산에 대해 생소한 현지인들에게 부산을 소개하고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나에겐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21박 22일의 대장정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보고 느끼며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고민할 수 있었고, 유라시아의 전망성을 눈으로 직접 실감함으로써 유라시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운영진분들과 다들 사이좋게 지낸 38명 단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촬영기록팀

청년_박강훈



유라시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계기로 한층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지나온 도시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전혀 몰랐던, 생각보다 많이 발전돼 있는 도시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로만으로 유럽과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번 대장정 루트를 통해 현실적으로 그 점을 더 많이 체감했고, 부산에서 시작해 유럽 대륙까지 육로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지만 혼자라면 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했고, 부산 청년들과 유라시아 도시들과의 교류행사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족했던 것마저도 좋은 추억이 되었고, 잊지 못할 기억들이 되었다.

특히 대장정을 하면서 팀별로 활동하는 점이 좋았고, 덕분에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힘든 여정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곳에 가니 행복했다. 미래에는 부산에서 시작하는 횡단열차를 타는 상상이 현실이 되길...

촬영기록팀

청년_한정희



처음에는 21박 22일이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뻘뻘한 일정이라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하자, 러시아 전통복장을 입은 미녀분들이 전통 빵을 나눠주며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공항까지 나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이튿날, 올림피예프 체육관에서 리틀부산 데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촬영기록팀은 한국 전통음식 존 부스를 맡아 호떡을 만들었다.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아 금세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하였다. 모든 팀원들이 두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열심히 행사에 참여하였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 같이 열심히 했기에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천산 천지를 보러 갔다. 천지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뜻한다고 한다. 기상악화로 인해 백두산 천지를 보지 못한 게 매우 아쉬웠는데 천산 천지를 보는 걸로 아쉬운 마음을 달랠다. 천산 천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산맥의 선이라든지 경관의 구조가 매우 아름다웠다. 역시 중국의 자연경관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 같다.

열차를 통해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지나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모스크바의 거리는 유럽처럼 예쁘게 조성되어 있었다. 역사탐방으로 간 붉은 광장과 바실리 성당은 사진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힘들 정도였다.

약 3주 동안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함께한 팀원들과 대장정 단원들, 멘토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유라시아 청년 대장정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공연행사팀

청년_김지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다른 나라에 가서 교류하며 나의 전공인 한국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알리고 싶은 것이 꿈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첫날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바로 다음날 공연을 하니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부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연팀이 부산의, 한국의 대표로 온 만큼 우리나라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유라시아 물류루트를 다니며 탐사하고 거점 도시별 교류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갈 때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엉덩이가 아프기는 했지만 버스 안에서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부산데이에서 단원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다들 대단하다고 느꼈고, 서로 서로 도와가며 협동하면서 팀워크도 좋아지고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 중국 훈춘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을 방문하여 세 나라의 경치를 보며 신기함을 느꼈다. 이튿날 백두산 일정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간 것이 너무 아쉬웠다.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넘어갈 때 항상 사진으로만 보았던 6인실 침대가 있는 좁은 중국기차를 실제로 타보니 처음에는 너무 좁아서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여섯 명이 방을 쓰다 보니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문이 달려 있지 않아 옆에 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서로 모르는 것은 알아가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각자 경험했던 것을 각자 경험했던 것을 소통하며 공유하다 보니 인생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다 보니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다. 우루무치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며 중국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을 가기 전 기차역에서 중국 사람들의 질서 없는 모습에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악취가 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다들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좋았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다.

알마티에서 이틀동안 부산데이 행사를 해야 하는데 피겨스케이팅 선수 데니스 텐의 안타까운 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알마티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었고, 침블락에서 좋은 추억도 남겼다. 오후에는 알마티 청년들과 친선교류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통하는 부분도 있었고 점점 친해져서 정말 재미있었다. 밥도 맛있었고, 한국어를 잘하는 알마티 친구들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 인스타그램 친구도 맺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데이 행사에서 정말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칭찬하고 싶고 또 전날 만났던 알마티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와줘서 정말 감동이었다. 아스타나로 넘어가는 기차에서 씻는 것은 힘들었지만 아스타나에 도착하고 도시의 전경과 설명을 들으며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좋았다. 기차에서 힘들었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아스타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았다.

다음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하는 길은 멀었지만 좋은 추억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석양과 백야를 보며 감성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고 탐방하며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영화의 역사도 알아가고 모스크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부산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며 이런 문화교류를 통해 도시간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친해질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북 상생의 시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 및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유라시아 철도·항만·물류 분야의 실천적 협력을 위해 '남북상생의 시대, 왜 유라시아인가?'라는 주제로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3개국의 해외인사 및 부산의 기업인, 학자, 유관기관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의 신북방 시장 진출 및 남북협력 선도와 관련하여 유라시아도시와의 실천적 협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부산-유라시아 지역 간 실천적 협력 및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평화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일시/장소 : 2018. 12. 6(목) 14:00-18:00/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발전연구원
- 참가자 : 한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관계 공무원, 기업인, 학자, 대학생 등 150여 명
-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내용
제1세션	남북상생의 시대, 부산의 위상과 역할	특별연설, 발표, 전문가 토론 (前통일부장관, 해외인사, 기관장, 교수 등)
제2세션	신북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부산-유라시아 철도·항만·물류분야의 실천적 협력	특별연설, 발표, 전문가 토론 (기업인, 기관장, 연구원 등)



▲ 개막식 주요내빈 기념촬영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특별연설



▲ 전문가 토론



▲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Eurasia Expedition 2018

- Period : 2018.7.11 (Wed.) ~ 8.1 (Wed.), 22 days and 21 nights
- Participants : 107 people
 - Expedition members numbered 55 (38 university students from Busan, 7 special guests, 10 operating team members)
 - 10 members from the group of the Deputy Mayor, 16 members from the Youth Basketball Team, 26 members from the Busan Youth Symphony Orchestra
- Title



- Route : Busan(Flight) ⇒ Vladivostok(by land) ⇒ Hunchun ⇒ Mt.Baekdu ⇒ Changchun(Train) ⇒ Beijing ⇒ Urumqi ⇒ Horgos(by land) ⇒ Almaty(Train) ⇒ Astana ⇒ Moscow ⇒ St. Petersburg(Flight) ⇒ Busan



- Hosted/Supported by :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Sponsored by :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Nongshim Co. Ltd., Treskta Co., Ltd., Busan One Asia Festival, YMIS.
- Main Contents : Eurasia Logistics Route Exploration and Exchange Events

Busan-Vladivostok (7/11~12)	Hunchun-Mt. Baekdu (7/13~14)	Changchun (7/15)	Beijing (7/16)	Urumqi (7/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Ceremony (Busan) · Welcome Ceremony (Vladivostok) · Little Busan Day · Youth Basketball Exchange g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ation of the Fangchuan observatory · Field trip to a Korean Corp.(Nongsh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lin University Campus Tour · Busan-Jilin Province Youth Friendship Exchange · History t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ing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na · Start-up Conce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k-Road history tour
Khorgos (7/20)	Almaty (7/21~22)	Astana (7/23)	Moscow (7/26~28)	St. Petersburg (7/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come Ceremony · Inspecting SEZ Khorgos-Eastern G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Busan Day · Special Lecture by Consul General of Almaty · Busan-Almaty Youth Friendship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al Lecture by Korean Ambassador of Kazakhstan · Korean Film Festival · History t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ing Mosfilm Studio · Busan-Moscow Next Generation Movie Exchange · Korean Film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an Day(Celebration of Busan-St. Petersburg's 10th anniversary as sister cities) · Busan-St. Petersburg Gala Concert · Field trip to Korean Corps.(Sungwoo Hitech, Hyundai) · History tour

Schedule

Day/Date	Time	Event	Venue	Note	
Busan					
Day1	7/11 (Wed.)	15:00-16:00	■ Opening Ceremony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1st floor	SU5463 Vlad Motor Inn Hotel
		19:25-22:15	□ Flight (Busan→Vladivostok)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2nd floor	
		22:30-23:00	■ Welcome ceremony	Vladivostok Airport	
(Russia) Vladivostok					
Day2	7/12 (Thu.)	10:00-15:00	■ History Tour	Central Square, Triumphal arch, Orlinoye Gnezdo Mountain, etc	Vlad Motor Inn Hotel
		17:00-19:00	■ Little Busan Day	Олимпиац, Батарейная	
		19:00-21:00	■ Busan-Vladivostok Youth Basketball game	Олимпиац, Батарейная	
(China) Hunchun ⇄ Erdaobaihe ⇄ Mt.Baekdu ⇄ Changchun ⇄ Beijing ⇄ Urumqi ⇄ Horgos					
Day3	7/13 (Fri.)	06:00-11:00	□ Bus (Vladivostok→Hunchun), Crossing the border	Transferring Ahn Jung-geun's memorial stone	WCSD Hotel
		14:00-15:00	■ Hope of Reunification-Exploration of the Fangchuan observatory	Hunchun Fangchuan	
		15:00-20:00	□ Bus (Hunchun→Erdaobaihe)		
Day4	7/14 (Sat.)	10:00-12:00	■ Field trip to a Korean Corporation	Nongshim (Erdaobaihe)	Changchun Yatai Hotel
		13:00-18:00	□ Bus (Mt.Baekdu→Changchun)	*cancelled because of rain	
Day5	7/15 (Sun.)	09:00-10:30	■ Jilin University Campus Tour	Jilin University	Z62(8h10m)
		11:00-14:00	■ Busan-Jilin Province Youth Friendship Exchange	Jilin Foreign Language University	
		15:00-17:00	■ History Tour	Yiman Royal Palace	
		21:58-06:08(+1)	□ Train (Changchun→Beijing)	Changchun Station	
Day6	7/16 (Mon.)	06:08	■ Arrival	Beijing Station	Chunhunwen Hotel
		10:00-12:00	■ Special Lecture by Korean Ambassador in China	Korean Embassy in China	
		16:00-18:00	■ Start-up Concert	KIC-China	
		18:00-20:00	■ Welcome dinner for the head of KIC- China Center		
Day7	7/17 (Tue.)	10:00-17:35(+1)	□ Train (Beijing→Urumqi)	Beijing Station	Z69(31h35m)
Day8	7/18 (Wed.)	17:35	■ Arrival	Urumqi Station	Uhou Hotel
Day9	7/19 (Thu.)	09:30-16:00 20:11-07:42	■ History tour □ Train (Urumqi→Horgos)	Heaven Lake of Tian Shan, International market Urumqi Station	K9789(11h28m)
(Kazakhstan) Khorgos ⇄ Almaty ⇄ Astana					
Day10	7/20 (Fri.)	07:42	■ Arrival	Horgos Station	Kazakhstan Hotel
		08:00-13:00	□ Bus (Horgos-Khorgos) Crossing the border	Horgos International Bus Terminal	
		14:00-17:00	■ Welcome Ceremony, Inspecting Special Economic Zone	SEZ Khorgos-Eastern Gate	
		17:00-21:00	□ Bus (Khorgos→Almaty)	Almaty	

Schedule

Day/Date		Time	Event	Venue	Note
Day11	7/21 (Sat.)	10:00-12:00	▪ History tour	Shymbulak	Kazakhstan Hotel
		13:00-15:00	▪ Busan-Almaty Youth Friendship Exchange	Shymbulak Cafe	
		16:00-17:30	▪ Special Lecture by Consul General of Almaty	Almaty Korean Educational Institute	
Day12	7/22 (Sun.)	11:00-17:00	▪ Korea-Busan Day	Gorky Park	701ㄴ(13h44m)
		18:36-08:20(+1)	□ Train (Almaty→Astana)	Almaty station 2	
Day13	7/23 (Mon.)	08:20	▪ Arrival	Astana station 1	King Hotel
		11:30-15:30	▪ History tour	Bayterek, Independence Celebration Palace	
		16:30-17:30	▪ Special Lecture by Korean Ambassador of Kazakhstan	Kazil Hotel	
		19:00-21:00	▪ Korean Film Festival	KINOPARK 7 IMAX	
Day14	7/24 (Tue.)	11:10-15:27(+2)	□ Train (Astana→Moscow)	Astana Station 1	083ㄴ(55h17m)
Day15	7/25 (Wed.)	All day	□ Train (Astana→Moscow)		
(Russia) Moscow ⇄ St. Petersburg					
Day16	7/26 (Thu.)	15:27	▪ Arrival	Moscow Kazansky Station	Intourist Kolomenskoye Hotel
		16:00-16:30	▪ Welcome Ceremony		
		17:00-21:00	▪ History tour	Red Square, St. Basil's Cathedral, Cruise tour	
Day17	7/27 (Fri.)	10:30-12:00	▪ Visiting Mosfilm Studio	Mosfilm Movie Studio	Intourist Kolomenskoye Hotel
		14:00-18:00	▪ Busan-Moscow Next Generation Movie Exchange	Dom Kino	
		19:00-22:00	▪ Korean Film Festival	Dom Kino	
Day18	7/28 (Sat.)	09:00-14:00	▪ History tour	Tsaritsyno Park, Sparrow hills etc	SAPSAN(3h46m) Diplomat Hotel
		15:30-19:16	□ Train (Moscow→St. Petersburg)	Moscow Leningradsky Station	
		19:16	▪ Arrival	St. Petersburg Moskovsky Station	
Day19	7/29 (Sun.)	12:00-18:00	▪ Festival-Bridge to Korea with Busan Day (10th anniversary as sister cities)	Alexandrobsky Park	Diplomat Hotel
		19:00-21:20	▪ Busan-St. Petersburg Gala Concert	Music hall	
Day20	7/30 (Mon.)	11:00-13:30	▪ Field trip to Korean Corps.	Sungwoo Hitech, Hyundai	Diplomat Hotel
		14:00-21:00	▪ History Tour	Summer Palace, Cathedral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Kazan Cathedral	
Day21	7/31 (Tue.)	10:00-19:00	▪ History Tour	Peter and Paul Fortress, St. Isaac's Cathedral, Ermitage	KE930
		23:00-13:50(+1)	□ Flight (St. Petersburg→Incheon)	Pulkovo International Airport	
Day22	8/1 (Wed.)	13:50	▪ Arrival Incheon	Incheon Airport	KE1123
		19:05	□ Arrival Busan	Gimhae Airport	